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박효희* · 성태제**

초 록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2학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사이 진로성숙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진로성숙도 변화과정에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에 더불어,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서의 성차에 부모-자녀 유대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도입하여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서 부모-자녀 유대 정도가 지니는 중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가 높아짐을 발견하였으며, 성별이 진로성숙도 초기수준과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유대정도가 지니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의 부모-자녀 유대 수준이 높았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남학생에 비해 보다 높은 진로성숙을 이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진로성숙, 부모-자녀관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화여자대학교

I. 서 론

진로발달이론의 경우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발달의 과정에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횡단연구만으로는 이론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절한 종단자료 및 종단연구 방법론의 보급이 미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대안적인 방법을 이용해왔다.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 각기 다른 연령 혹은 학년간의 진로발달수준의 차이를 연구하여 그것으로 연령, 학년에 따른 진로발달수준의 변화에 대해 밝혀왔다(Post-Kammer, 1987; Patton, and Creed, 2001; Patton et al., 2004; Pieterse, 2005). 그러나 각 연령 혹은 학년 집단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모두 통제하여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접근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진로발달에 대해 알 수 없다. 따라서 진로발달수준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추론을 위해서는 동일한 개인에 대한 반복측정치를 바탕으로 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되며,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의 변화가 감지되었다면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변화의 원인이 되는 속성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제3의 변수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가령 성별은 진로발달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사실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변화가능성이 없어 그 영향력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고 하여도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파악 없이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처치를 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이 진로발달수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파악함에 있어 부모-자녀 유대라는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그 종단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진로발달수준의 변화를 모형화 함에 있어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수 자체도 변화 가능성을 지님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청소년 진로발달의 예측변수로서 살펴보려는 부모와의 유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갈린스키(Galinsky, 1987)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가 고정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으며 부모기(parenthood) 자체도 변화하며 성장한다. 이 같은 경우 종속변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측변수의 변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진로발달

진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된 직업적 자아개념과 세계인식이 조화를 이루어 그들의 접합지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결정적인 계기나 기회를 맞아 획기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 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라든지 아직은 진로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청소년기 진로탐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사실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숙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성인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느 영역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는 파악하게 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Jones, 1992). 따라서 진로 특성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청소년기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진로선택이 개인의 생애사에 깊은 관련을 두고 있어 장시간에 걸쳐 구성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진로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기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이에 따라 Super(1957)는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크게 다섯 가지의 발달단계로 나누고 이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는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진출할 진로 영역을 파악하려는 시기로 학교수업, 여가활동,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등 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대안이 될 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탐색기의 발달 과업이 가지는 특징을 세 단계로 분류하여 나타내보면 현실화(crystallization), 구체화(specification), 실행화(actualization)로 나눌 수 있다. 발달 과업 중 첫 번째인 현실화 단계에서는 자아상을 차별화함으로써 직업적 선호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며, 두 번째 단계인 구체화에서는 역할 행동(role playing)등을 통해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성 검증(reality testing)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깊이 있는 탐색활동이 이루어져 진로선택을 구체화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실행화는 자신의 선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요하는 단계를 뜻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진로의식 및 태도의 발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슈퍼(Super, 1954)와 크리테스(Crites, 1974)에 의해 창안된 진로성숙도라는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유사한 연령집단에서의 상대적 진로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진로성숙도는 크게 태도(attitudes)와 능력(competencies)차원으로 나뉘며, 태도차원은 다시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타협성, 성향으로, 능력차원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로 분류되어진다. 진로성숙도 모형에 따르면 계획성 있는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축적된 진로정보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며 개인은 이때부터 실질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하고 준비된 상태에 이른다(Savickas et al., 2002). 결국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높은 개인은 진로성숙도가 낮은 개인에 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별 진로성숙도의 차이

기존의 연구에서 진로성숙에 있어서의 성차는 가장 많이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일관된 논리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King, 1989; Westbrook, 1984; Luzzo, 1995; 김미숙, 1998; 김상혁, 2001; 이승중, 2003)와 남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Achebe, 1982; Post-Kammer, P, 1987; 김정령, 2001; 정윤경, 2005), 진로성숙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Watson and van Aarde, 1986; Lee, 2001)가 모두 존재하여 진로성숙에 있어서의 성차에 대한 일관된 추론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이들 연구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의 표본을 지니는 것이 지목될 수 있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횡단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특정 시점에서의 성차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성차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된 추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별이 진로성숙의 지속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진로성숙에 있어 성차가 존재한다는 발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하여 성별 진로성숙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청소년기 진로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청소년들은 비록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스스로 진로 관련 고민을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였으며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모야말로 이들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진로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한 인원이 각각 전체의 12.4%, 21.5%로 형제, 친구, 교사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유정이, 이영선, 박정민, 200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밝힌 이정규(2006)의 연구에서 칭찬, 소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의사존중으로 구성되는 평가적 지지는 기타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 비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아효능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한 노미순(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성숙과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가 진로성숙을 가장 많이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 자율성을 증진시켜 진로미결정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uay et al., 2003), 이 밖에도 진로탐색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모의 감정적, 사회적, 존중적, 정보적 지지 등 다차원적인 지지의 영향력이 보고된 바 있다(Schultheiss et al., 2001).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타인인 부모로부터의 존중, 지지, 긍정적인 평가는 청소년의 진로태도 및 의식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역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김희수, 홍성훈, 윤은중(2005)의 연구결과에서 부모 모두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진로정체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진로결정과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보였다. 또한 박효희, 신정민, 신진아(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유보하게 되며 자율성이 떨어지고 충분한 자기 이해가 이루어 지지 않아 진로태도의 성숙을 방해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에 대해

비교 연구한 김선미, 심인선(2003)의 연구에서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진로 상담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게 나타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자녀 간 대화의 장이 부모의 가치관과 의사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목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부모-자녀간의 애착을 제시할 수 있다(Blustein et al., 1991).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주는 영향을 연구한 이희영(2000)은 청소년 자녀가 가지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체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으며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최적의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강력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부모와 심리적으로 적절히 독립된 관계라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부모와의 애착 모두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그 중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성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Lee and Hughey, 2001).

위의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지지, 의사소통, 애착 등의 형태로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하여 부모-자녀가 정서적으로 유대 할수록 청소년의 진로태도가 발달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 KYPS)의 중학교 2학년 패널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가 시작된 2003년의 최초 사례수는 3,449명(남자 1,725명, 여자 1,724명), 2004년은 3,188명(남자 1,594명, 여자 1,594명), 2005년은 3,125명(남자 1,572명, 여자 1,553명)으로 나타나 매년 90%이상의

표본 유지율을 보였으며 3년 간 남녀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 측정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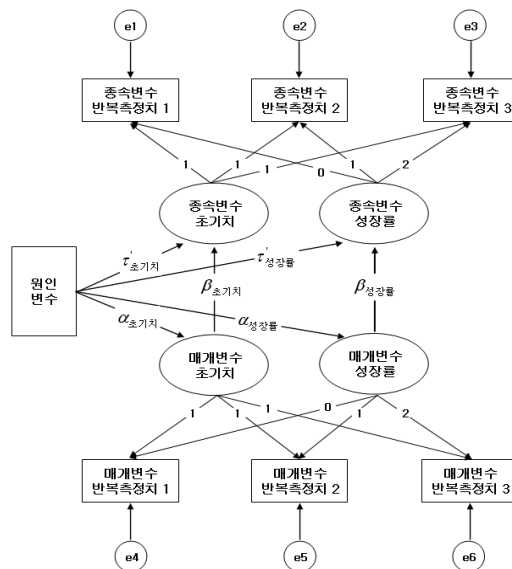
부모-자녀 유대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는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정서적 친밀함, 의사소통 등을 측정하는 6개의 개별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진로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로태도의 발달지표로서 진로성숙도를 활용하고자 하므로 각 조사시점 별로 진로성숙도의 측정을 위해 14개의 동일한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고,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역채점 되었다.

<표 1> 문항분류표

부모-자녀 유대 측정문항 (총 6문항)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진로성숙도 측정문항 (총 14문항)
• (직업선택 관련) 적성 및 소질에 대해서 알지 못함 • (직업선택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직업의 종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함 • (직업선택 관련)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선택하기 어려움 • (직업선택 관련) 갖고 싶은 장래직업이 자주 바뀜 • (직업선택 관련) 장래직업에 대해 부모님과 의견차이가 커서 결정을 내리지 못함 • (직업선택 관련)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직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 (직업선택 관련) 내 의견보다는 부모님 의견을 따르는 편 • (향후진로 관련) 나의 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함 • (향후진로 관련) 진로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향후진로 관련)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 힘들 • (향후진로 관련) 가보고 싶은 진로가 자주 바뀜 • (향후진로 관련) 부모님과 의견차이가 커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향후진로 관련) 미래는 알수 없는 것이므로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소용없음 • (향후진로 관련) 내 의견보다 부모님 의견을 따르는 편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모두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time-varying variable)로 취급하여 원인변수의 영향력 하에서 매개변수의 변화와 종속변수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모형화하여 종단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선 각 변수 별 단변량 상태에서 변화함수 및 오차 분산에 대해 설정하여 변화모형을 수립하고, 그렇게 얻어진 각 변화모형을 결합하여 하나의 변화모형을 구성하며, 그 후 원인변수를 투입하는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MacCallum and Kim, 2000), 단변량 상태에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별 변화모형을 수립한 다음 이분변수인 성별을 원인변수로 투입함에 앞서 다집단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각각의 변화에 있어 남녀 집단간 성장모수치의 차이를 밝히고, 만약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면 성별 변수를 원인변수로 설정하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그 후 두 구인의 변화모형을 결합한 상태에서 원인변수를 투입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매개효과 검증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수립된 매개모형에서 초기치와 성장률 각각의 측면에서 매개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그림-1 참조).



[그림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 경로도

[그림-1]을 살펴보면, 초기치에 해당하는 매개과정에서 원인변수가 종속변수의 초기치에 주는 직접효과는 $\tau'_{\text{초기치}}$, 원인변수가 매개변수의 초기치에 주는 효과는 $\alpha_{\text{초기치}}$, 매개변수의 초기치가 종속변수의 초기치에 주는 효과는 $\beta_{\text{초기치}}$ 로 표시된다. 성장률에 해당하는 매개과정에서는 원인변수가 종속변수의 성장률에 주는 직접효과는 $\tau'_{\text{성장률}}$, 원인변수가 매개변수의 성장률에 주는 효과는 $\alpha_{\text{성장률}}$, 매개변수의 성장률이 종속변수의 성장률에 주는 효과는 $\beta_{\text{성장률}}$ 로 나타내어진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원인변수가 매개변수에 주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α 계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β 계수가 유의함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τ' 계수는 유의하지 않더라도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매개과정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이 확인한 뒤, Sobel, Aroian, Goodman, Asymmetric CI의 네 가지 방법에 의해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연구대상 구인 중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time-invariant variable)로 가정되는 성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성별에 대한 빈도

	빈 도	(%)
남 자	1,725	(50.0)
여 자	1,724	(50.0)
합 계	3,449	(100.0)

또한 부모-자녀 유대 정도 및 진로성숙도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time-varying variable)로 가정되었으므로 각 연도별로 기술통계 값을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자녀 유대 정도와 진로성숙도 모두 평균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 부모-자녀 유대 정도 및 진로성숙도에 대한 기술통계

구 인	조사시점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부모-자녀 유대 정도	1차년도	3,449	3.340	0.779
	2차년도	3,188	3.416	0.758
	3차년도	3,125	3.434	0.726
진로성숙도	1차년도	3,449	3.498	0.677
	2차년도	3,188	3.533	0.686
	3차년도	3,125	3.631	0.669

2. 측정도구의 양호도 검증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의 문항 내에서 해당 구인을 측정하는 변수를 선정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측정도구의 양호도를 우선 검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측정도구가 되는 각 구인을 대상으로 측정의 양호도를 살펴본다. 우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이루는 각 지표변수(indicator)가 단일 차원의 속성을 측정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구인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와의 관계와 진로성숙도 구인 모두에서 첫 번째로 추출된 요인에서의 고유값과 분산 비율은 다른 요인의 고유값과 분산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므로 매 조사시점에서 각 구인이 일차원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 구인의 주성분 분석 결과

연도	요인	부모와의 관계			진로성숙도		
		고유값	%분산	%누적	고유값	%분산	%누적
1 차	1	3.535	58.912	58.912	4.008	28.632	28.632
	2	0.792	13.198	72.110	1.460	10.425	39.057
	3	0.570	9.505	81.615	1.420	10.146	49.203
2 차	1	3.782	63.030	63.030	4.632	33.083	33.083
	2	0.756	12.594	75.624	1.437	10.267	43.349
	3	0.503	8.384	84.008	1.213	8.668	52.017
3 차	1	3.790	63.162	63.162	4.946	35.331	35.331
	2	0.736	12.271	75.433	1.583	11.308	46.639
	3	0.500	8.336	83.769	1.383	9.880	56.519

〈표 5〉와 같이 각 구인을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각 구인이 1, 2, 3차년도에서 모두 .8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각 구인이 일관성 있게 측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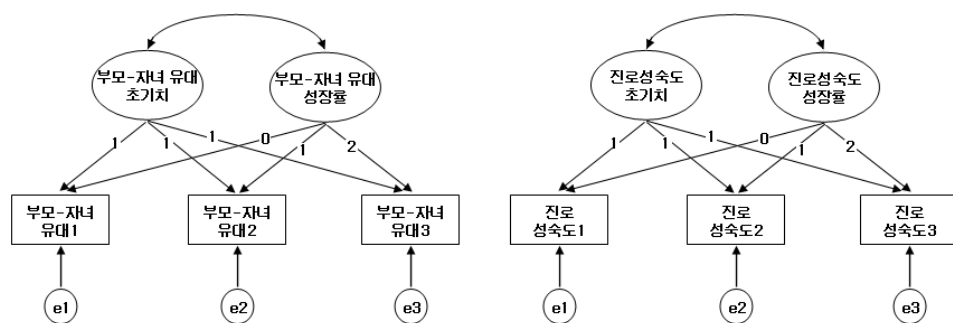
〈표 5〉 조사대상 구인의 Cronbach α 신뢰도 분석 결과

조사년도 \ 구인	부모와의 관계	진로성숙도
1차년도	.859	.804
2차년도	.882	.842
3차년도	.882	.857

3.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1) 구인의 변화여부 검증

자료가 세 시점 반복측정치로 구성되어있으므로 각 변화함수는 선형으로 가정되었 으며, 잠재요인인 초기치와 성장률의 평균 추정을 위해 각 측정변수의 절편은 0으로, 잠재성장모형의 기본가정에 의해 측정오차의 평균이 0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각 변 화모형은 [그림 2]와 같이 표현되며,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2] 각 구인별 변화모형의 경로도

<표 6> 각 구인별 변화모형의 적합도

변화모형	χ^2	NNFI	RMSEA
부모-자녀 유대 정도	9.225** (df=1)	.981	.049 90% CI: (.024, .080)
진로성숙도	8.063** (df=1)	.974	.045 90% CI: (.020, .076)

* p < .05, ** p < .01, *** p < .001

χ^2 값은 표본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므로 표본 크기가 큰 이 연구에서 적합도 지수로 활용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설명력과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NNFI와 RMSEA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유대 정도 변화모형의 경우 NNFI가 .981, RMSEA가 .049(90% 신뢰구간: .024, .080)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 변화모형의 경우 NNFI가 .974이고 RMSEA가 .045(90% 신뢰구간: .020, .076)로 나타나 두 변화모형 모두 타당하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변화모형에서의 구체적인 모수 추정치는 <표 7>과 같다.

<표 7> 각 변화모형의 모수 추정치

성장모수에 대한 요인부하량	부모-자녀 유대 정도		진로성숙도	
	초기치	성장률	초기치	성장률
중2 (2003년도)	1 ^a	0 ^a	1 ^a	0 ^a
중3 (2004년도)	1 ^a	1 ^a	1 ^a	1 ^a
고1 (2005년도)	1 ^a	2 ^a	1 ^a	2 ^a
성장모수	평 균	분 산	평 균	분 산
초기치	3.349(.013) ^b	.388(.019) ^b	3.490(.011) ^b	.249(.015) ^b
성장률	.045(.007) ^b	.043(.008) ^b	.067(.007) ^b	.044(.007) ^b
성장모수간의 공분산				
		-.053(.010) ^b		
			-.039(.008) ^b	
오차분산				
중2 (2003년도)	.218(.017) ^b		.210(.015) ^b	
중3 (2004년도)	.252(.009) ^b		.256(.009) ^b	
고1 (2005년도)	.18(.016) ^b		.180(.015) ^b	

* 주: ^a모형에서 고정된 모수, ^b표준오차가 추정된 모수치

각 변화모형에서 각 측정시점에서의 반복측정치에 초기치에 대해 같은 요인부하량을 가지며, 성장률에 대해서는 각각 0, 1, 2의 값을 가지도록 고정되었다. 이에 따른 부모-자녀 유대 정도 초기치의 평균은 3.349, 성장률은 .045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성장모수에 대한 평균 추정치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부모-자녀 유대 정도 성장률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모-자녀 유대 정도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성장모수에 대한 분산은 .388, .04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변화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성장모수 간 공분산의 값은 -.053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추정치 역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치와 성장률 간의 부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진로성숙도 초기치의 평균은 3.490, 성장률의 평균은 .067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들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진로성숙도가 3년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성장모수 간 공분산이 추정되었는데 그 값은 -.039로 역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치와 성장률간의 부적의 관련성이 파악되었다.

2)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변화에서의 부모-자녀 유대 의 매개효과 검증

이분변수인 성별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각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매개변수인 부모-자녀 유대 정도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대해 성별 다집단 잠재성장모형(multi-group latent growth model)을 각각 적용하였다. 우선 [그림 2]의 좌측과 같이 설정된 부모-자녀 유대 정도의 변화모형에 대해 성별로 성장모수치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적용한 결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는 <표 8>과 같았다.

<표 8> 각 변화모형의 적합도 (성별 다집단 분석)

변화모형	χ^2	NNFI	RMSEA
부모-자녀 유대 정도	18.998** (df=5)	.987	.028 90% CI: (.016, .043)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자녀 유대 정도의 성별 다집단 변화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NNFI가 .987, RMSEA가 .028(90% 신뢰구간: .016, .043)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성별 다집단 부모-자녀 유대 정도 변화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및 추정된 모수치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부모-자녀 유대 정도 변화모형의 모수 추정치 (성별 다집단 분석)

	남 자(N=1725)			여 자(N=1724)	
성장모수에 대한 요인부하량	초기치	성장률		초기치	성장률
부모-자녀 유대 정도 1 (중2)	1 ^a	0 ^a	=	1 ^a	0 ^a
부모-자녀 유대 정도 2 (중3)	1 ^a	1 ^a	=	1 ^a	1 ^a
부모-자녀 유대 정도 3 (고1)	1 ^a	2 ^a	=	1 ^a	2 ^a
성장모수	평 균	분 산		평 균	분 산
초기치	3.283(.018) ^b	.352(.022) ^b		3.415(.019) ^b	.417(.024) ^b
성장률	.027(.009) ^b	.047(.009) ^b		.064(.009) ^b	.039(.009) ^b
성장모수간의 공분산					
	-.057(.011) ^b			-.051(.011) ^b	
오차분산					
부모-자녀 유대 정도 1 (중2)	.218(.017) ^b		=	.218(.017) ^b	
부모-자녀 유대 정도 2 (중3)	.253(.009) ^b		=	.253(.009) ^b	
부모-자녀 유대 정도 3 (고1)	.179(.016) ^b		=	.179(.016) ^b	

주 : ^a모형에서 고정된 모수, ^b표준오차가 추정된 모수치

남녀 집단의 초기치 평균은 각각 3.283, 3.415로 나타나 여자 집단의 부모-자녀 유대 초기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집단의 성장률 평균이 각각 .027, .064로 나타나 여자 집단의 부모-자녀 유대 정도가 남자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모수 간 공분산에 있어 두 집단은 각각 -.057과 -.051의 값을 보여 초기치와 성장률 간의 부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 변화모형에도 성별 다집단 분석이 적용되었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표 10>과 같다.

<표 10> 진로성숙도 변화모형의 적합도 (성별 다집단 분석)

변화모형	χ^2	NNFI	RMSEA
진로성숙도	51.482*** (df=5)	.931	.052 90% CI: (.04, .065)

* p < .05, ** p < .01, *** p < .001

NNFI가 .931, RMSEA가 .052(90% 신뢰구간: .04, .065)로 나타나 설정된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모형이 적절함을 알 수 있으며 변화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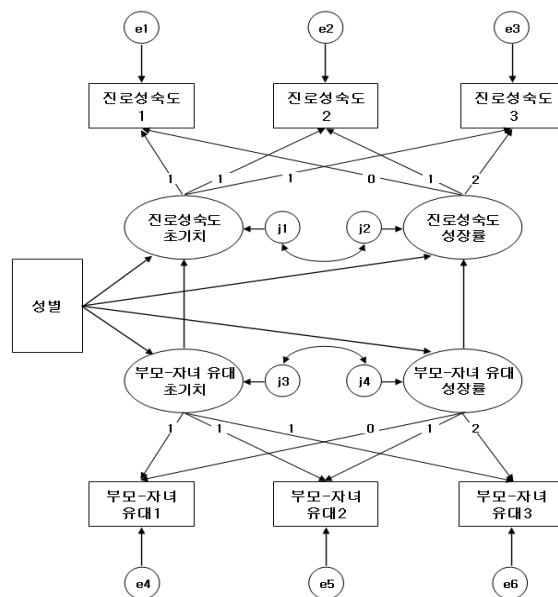
<표 11> 진로성숙도 변화모형의 모수 추정치 (성별 다집단 분석)

	남 자(N=1725)			여 자(N=1724)	
성장모수에 대한 요인부하량	초기치	성장률		초기치	성장률
진로성숙도 1 (중2)	1 ^a	0 ^a	=	1 ^a	0 ^a
진로성숙도 2 (중3)	1 ^a	1 ^a	=	1 ^a	1 ^a
진로성숙도 3 (고1)	1 ^a	2 ^a	=	1 ^a	2 ^a
성장모수	평 균	분 산		평 균	분 산
초기치	3.419(.016) ^b	.273(.019) ^b		3.561(.015) ^b	.212(.017) ^b
성장률	.063(.010) ^b	.057(.008) ^b		.071(.009) ^b	.028(.008) ^b
성장모수간의 공분산					
	-.053(.010) ^b			-.025(.009) ^b	
오차분산					
진로성숙도 1 (중2)	.211(.015) ^b		=	.211(.015) ^b	
진로성숙도 2 (중3)	.255(.008) ^b		=	.255(.008) ^b	
진로성숙도 3 (고1)	.182(.015) ^b		=	.182(.015) ^b	

주 : ^a모형에서 고정된 모수, ^b표준오차가 추정된 모수치

진로성숙도 변화모형에 대한 성별 다집단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 초기치 평균이 남녀 집단에서 각각 3.419, 3.561로 나타나 여자 집단의 중학교 2학년 당시의 진로성숙도 초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성장률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녀 집단의 평균이 각각 .063, .071로 나타나 초기수준 뿐 아니라 성장률도 여자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자녀 유대 정도의 변화 및

진로성숙도 변화에서의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써 성별을 원인변수로 하여 부모-자녀 유대 정도 및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부모-자녀 유대 정도 변화모형과 진로성숙도 변화모형을 결합하여 성별 매개모형을 구성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 경로도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변화에서의 부모-자녀 유대 정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그림 3]의 변화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표 12>와 같고, 구체적인 모형의 설정 및 모수추정치는 <표 13>과 같다.

<표 12> 매개모형의 적합도

	χ^2	NNFI	RMSEA
매개모형	44,122*** (df=11)	.982	.030 90% CI: (.021,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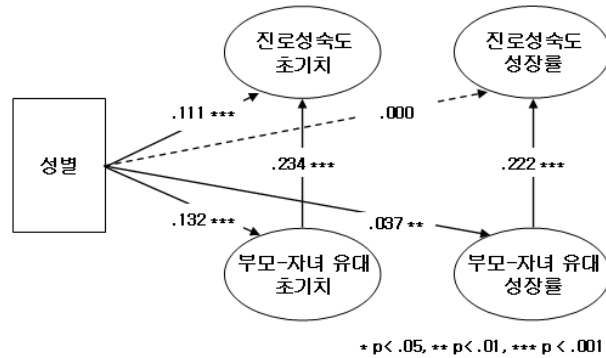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13> 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

부모-자녀 유대 정도			
성장모수에 대한 요인부하량	초기치	성장률	오차분산
부모-자녀 유대 정도 1 (중2)	1 ^a	0 ^a	.217(.015) ^b
부모-자녀 유대 정도 2 (중3)	1 ^a	1 ^a	.253(.009) ^b
부모-자녀 유대 정도 3 (고1)	1 ^a	2 ^a	.177(.015) ^b
절편			
초기치	3.283(.018) ^b		.384(.018) ^b
성장률	.027(.009) ^b		.044(.007) ^b
진로성숙도			
성장모수에 대한 요인부하량	초기치	성장률	오차분산
진로성숙도 1 (중2)	1 ^a	0 ^a	.213(.014) ^b
진로성숙도 2 (중3)	1 ^a	1 ^a	.255(.008) ^b
진로성숙도 3 (고1)	1 ^a	2 ^a	.182(.014) ^b
절편			
초기치	2.649(.059) ^b		.222(.015) ^b
성장률	.057(.010) ^b		.040(.007) ^b
성 별	평균 : .5(.009) ^b	분산 : .250(.006) ^b	
성장모수 잔차 간 공분산			
부모-자녀 유대 정도(초기치 ↔ 성장률)	-.054(.009) ^b		
진로성숙도 (초기치 ↔ 성장률)	-.036(.008) ^b		
매개과정 경로계수			
성별 → 초기치부모-자녀 유대 정도	.132(.026) ^b		
성별 → 성장률부모-자녀 유대 정도	.037(.013) ^b		
초기치부모-자녀 유대 정도 → 초기치진로성숙도	.234(.017) ^b		
성장률부모-자녀 유대 정도 → 성장률진로성숙도	.222(.053) ^b		
성별 → 초기치진로성숙도	.111(.022) ^b		
성별 → 성장률진로성숙도	.0(.013) ^b		

주 : ^a모형에서 고정된 모수, ^b표준오차가 추정된 모수치

<표 13>에 제시된 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 중 구조모형에서의 값을 유의도 검증결과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 주: 성별 변수는 (남 0, 여 1)로 설정

[그림 4] 매개모형의 구조모형 모수추정치

〈표 13〉과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구인의 변화가 결합된 매개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성별은 부모-자녀 유대 정도 초기수준에 .132만큼의 영향을 미치며 진로성숙도 초기수준에는 .111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영향력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성별은 부모-자녀 유대 정도의 성장률에 .037만큼의 영향을 미쳤고 이 계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성숙도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모형에서 성별 변수가 남자 0, 여자 1의 값을 가지도록 설정되었으므로 부모-자녀 유대 정도 초기수준과 성장률, 진로성숙도의 초기수준에 있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구인의 성장모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당시의 부모-자녀 유대 정도 초기수준과 진로성숙도 초기수준 사이의 회귀계수는 .234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부모-자녀 유대 정도의 초기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초기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유대 정도 성장률과 진로성숙도 성장률 사이의 회귀계수 .222 역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부모-자녀 유대 정도의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 성장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치와 성장률 측면 모두에서 ‘성별 → 부모-자녀 유대’, ‘부모-자녀 유대 → 진로성숙도’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므로 초기수준과 성장률 측면 모두에서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였다. Sobel, Aroian, Goodman, Asymmetric CI 방법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매개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Sobel	Aroian	Goodman	Asymmetric CI (95% CI)
초기치	4.763***	4.752***	4.774***	(.01858, .04401)
성장률	2.354*	2.301*	2.401*	(.00229, .01588)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초기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Sobel 통계치는 4.763, Aroian 통계치는 4.752, Goodman 통계치는 4.774로 나타났고 이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Asymmetric CI 검증 결과에서 신뢰구간의 하한선은 .01858, 상한선은 .04401로 나타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Asymmetric CI 방법에서도 역시 초기치 측면에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장률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에서도 각 통계치는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장률의 매개효과에 대한 Asymmetric CI 검증 결과에서도 95% 신뢰구간의 하한선은 .00229, 상한선은 .01588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성장률 측면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이 진로성숙도의 초기수준 및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유대 정도가 가지는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성별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자녀 유대가 지니는 매개효과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전 사전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로성숙도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를 거치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시점에서 각기 다른 연령 혹은 학년 사이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연령,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대하여 추론하였던 기존연구(Post-Kammer, 1987; Patton and Creed, 2001; Patton et al., 2004)와 달리, 이 연구의 결과는 여러 시점에 걸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반복측정을 통해 도출되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연령,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진로전환기인 중학교 3학년 시기 및 계열 선택이 요구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를 거치면서 진로태도가 성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급이 변경되는 시기에 미래의 교육과 직업 등에 대한 진로탐색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관련 있다(Kalakoski and Nurmi, 1998). 또한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가 진행될수록 부모-자녀 유대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통념이 존재하나 이 연구에서 다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자녀 유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성숙도 및 부모-자녀 유대의 변화모형에서 초기치와 성장률의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화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이로써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투입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원인변수인 성별은 이분변수이므로 우선 다집단 잠재성장모형(multi-group 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3년간 부모-자녀 유대 변화 및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서의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여학생의 부모-자녀 유대 및 진로성숙도의 초기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매개모형을 구성한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있어 부모-자녀 유대가 지니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중학교 2학년 당시의 초기수준에 있어 여학생일수록 부모-자녀 유대가 긍정적이었으며 진로성숙도가 높았고, 부모-자녀 유대는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따라 초기수준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별이 진로성숙도 초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와의 유대가 지니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률 측면에서도 역시 여학생일수록 부모-자녀 유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이 진로성숙도 성장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이 부모-자녀 유대를 매개로 진로태도 성장률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즉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이 중학교 2학년 당시의 진로성숙도의 초기수준 및 3년 동안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모두 부모-자녀 유대가 지니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이 진로성숙도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매개변수인 부모-자녀 유대를 도입해야 해당 인과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의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난 50여 년간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에 대해서 빈번하게 다루어왔으나, 성별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의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성별과 같은 변수의 영향력이 보고되었다고 하여도 해당 변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에 대한 고찰 없이는 실제적 상황의 개선에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이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자녀 유대라는 과정적 변수를 도입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성별이 진로성숙도의 초기수준 및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부모-자녀 유대가 지니는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보고되어왔던 원인 중 하나로 여학생이 부모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임을 지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타인이자,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자신의 사고 및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며 직업세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문을 제공하는 부모와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령(2001).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1998). 고등학생의 진로意識과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혁(2001). 고등학생의 지역 및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심인선(2003).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영향요인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6권 제1호, pp. 1-19.
- 김희수·홍성훈·윤은중(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 37-65.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효희·신정민·신진아(2006).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871-889.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정이·이영선·박정민(2003). 청소년 진로불안 감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승중(2003).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의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규(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0권 제3호, pp. 571-586.
- 이희영(2000).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 진로발달. 부산교육학연구, 제13권 제1호, pp. 1-19.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이론 연구 및 적용. 서울: 학지사.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259-30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chebe, C. C. (1982). Assessing the vocational maturity of students in the East Central State of Nigeri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0, pp. 153-161.
- Bandura, A. (1995). Exercise of pers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 In A. Bandura (Ed.),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and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8, pp. 39-50.
- Bosma, H. A. (1992). Identity in adolescence: Managing commitments. In G. R. Adams, T. P. Gullotta and R. Montemayor (Eds.),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pp. 91-121). Newbury Park, CA: Sage.
- Crites, J. O. (1974). Career development process: A model of vocational maturity. In E. L. Herr (Ed.), *Vocational guidance and human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 Galinsky, E. (1987).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Massachusetts: Addison-Wesley. 김세희(역) (1992).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 부모기의 6단계*. 서울 : 양서원.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and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0 No. 2, pp. 165-177.
- Jones, L. K. (1992). *The encyclopedia of career change and work issues*. Phoenix, Ariz.: Oryx Press.
- Kalakoski, V. and Nurmi, J. (1998). Identity and Educational Transitions: Age Differences in Adolescent Exploration and Commitment Related to Education, Occupation, and Famil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8 No. 1, pp. 29-47.
- King, S. (1989). Sex differences in a causal model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68, pp. 208-215.
- Lee, Hee-young and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27 No. 4, pp. 279-293.
- Lee, Ki-Hak (2001).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and United States

-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28 No. 1, pp. 43-57.
- Luzzo, D.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73, pp. 319-325.
- MacCallum, R. C., and Kim, C. (2000). Modeling multivariate change. In T. D. Little, K. U. Schnabel, and U. Lindenberg (Eds.), *Modeling Longitudinal and Multiple-Group Data: Practical Issues, Applied Approaches, and Specific Exampl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Nurmi, J. (1991). How do adolescents see their future? 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future orientation and planning. *Developmental Review*, Vol. 11, pp. 1-59.
- Patton, W. and Creed, P. A. (2001). Developmental issues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tatu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9, pp. 336-351.
- Patton, W., Watson, M. and Creed, P. (2004). Career maturity of Australian and South African high school students: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explanations.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13 No. 1, pp. 33-41.
- Pieterse, A. M.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perspective and career maturity for grade 11 and 12 learners*. PhD thesis.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 Post-Kammer, P. (1987).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career maturity of 9th- and 11th-grade boys and girl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65 No. 8, pp. 420-423.
- Savickas, M. L., Briddick, W. C. and Watkinsr, C. E. Jr. (2002). The relation of career maturity to personality type an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0 No. 1, pp. 24-41.
- Schultheiss D. E., Kress H. M., Manzi, A. J. and Glasscock, J. M.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29 No.2, pp. 216-241.
- Super, D. E. (1954). Career patterns as a basis for vocation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1, pp. 12-20.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Watson, M. B. and van Aarde, J. A. (1986). Attitudinal career maturity of South African colored high school pupi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9, pp. 7-16.
- Westbrook, B. W. (1984). Career maturity: The concept, the instruments, and the research. In W. B. Walsh and S. B.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Vol. 1, pp. 263-303). NJ: Lawrence Erlbaum.

ABSTRACT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on Career Maturity Development According to Gender

Park, Hyo-Hee* · Seong, Tae-Je**

This research proceeds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exerts a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in career maturity development and we therefore focus on testing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through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In the preliminary stages of research, positive change was seen in both career maturity and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between the 8th grade and 10th grade, and girls had higher initial status and growth rate than boys in terms of both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career maturity. Therefore gender was introduced as a subject variable in the mediation process. In conclusio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s a mediator of gender upon career matur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erms of both initial status and growth rate.

Key Words : career maturity,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투고일 : 9월 15일, 심사일 : 10월 22일, 심사완료일 : 11월 14일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Ewha Womans University